

# “문화기획자 조례 제정 생활안정 보장해야”

‘청년문화기획자가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



지난 27일 광주문화재단에서 광주 지역 문화기획자 및 예비 기획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문화기획자가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김미숙 하나무용단’ 한국무용제전 선다

지역 유일 참가... 4월 2일 아르크극장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한국무용제전은 한국 춤 전문 단체들이 매년 한국창작춤 선보이며 한국무용의 흐름을 조명해 온 행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문화 유산을 테마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글로벌 아트 춤 축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 뿐 아니라 인도와 필리핀 등 아시아 창작 춤 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지난 29일 서울 아르크 대극장에서 열린 개막공연에는 채향순 무용단과 인도 Temple of fine arts 무용단이 첫무대를 장식했다. 오는 6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행사에는 창무희, 백현순무용단, 필리핀 국립민속댄스컴퍼니 등 모두 13개 단체가 참여하며 지방에서는 광주의 김미숙하나무용단이 유일하게 무대에 오른다.

16회 전국무용제에서 ‘회소’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지난 2011년 ‘오월 광주’를 소재로 한 ‘그해 오월(사진)’을 공연하며 처음 서울 무대에 입성한 이후 ‘푸른 가배’ 등을 무대에 올려왔다.

오는 2일 오후 8시 아르크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김미숙하나무용단의 올해 참가작은 ‘아름답거나, 혹은 슬프거나’이다. 이번 작품은 현대인들의 꿈과 상실을 춤사위로 엮었다. 열심히 꿈을 좇아 달리지만 성취의 희열과 함께 무엇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름다움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풀어냈다.

안무는 무용단 대표 김미숙(조선대무용과 겸임교수)씨가 맡았다. 김씨는 지난해 전주대 사습 무용 부문에서 장원을 수상했으며 한국 예술평론가협회의 회 수여하는 제33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 심사위원 선정 특별 예술가 상도 받았다.

동아무용공부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그해 오월’ 등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준 배강원씨를 비롯해 이현주·정명훈·장우영·장민석씨 등이 출연한다.

한편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창작무용 ‘달빛 연가’는 오는 9월 서울 성암아트홀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mekim@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의사라는 말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문화기획자도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합니다.”(김가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분리돼야 합니다.”(신호운)

“창조적인 역할을 청년들에게 꼭 짚어내려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줘야 합니다.”(윤현석)

지난 27일 열린 ‘청년문화기획자가 행복한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나온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행사는 28(이팔)청춘 네트워크·광주문화재단·광주발전연구원 공동주최하고 ㈜주스컴퍼니·전남대학교 BK21플러스 지역기반 문화융합관광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주관 했다.

윤성진(사)한국문화기획회와 상임이사, 박시훈 교육문화공동체 결 대표, 정민용 북구문화의집 관장, 김광옥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고,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무한 대표, 윤현석(주)컬처네트워크 대표, 김가연(주)라우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부분 문화기획자들은 이날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사업이 10년 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이제야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청년 문화기획자라는 생소한 단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정민용 관장은 “상당히 늦기는 했지만 청년 문화기획자가 늘어나고, 모이는 등 광주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긍정적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문화기획자들이 마을, 동네, 현장 등으로 파고들어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광옥 연구위원은 “광주문화의 문제는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주시가 소규모 거리 공연, 전시 등을 브랜딩하는 ‘작은 브랜딩’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현

**김가연(주)라우대표**  
“청년 창의성 살리는 지원 필요”  
**정민용 북구문화의 집 관장**  
“현장 안에서 삶 담은 기획해야”

지니어림회의 진흥법을 예로 들며, 문화기획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초·중·고급으로 나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주시가 문화기획자 인증제를 도입해 기획자들의 경력관리를 해주면서 전국에 문화기획자들을 프로모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무용 교수는 “사람들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문화기획자라는 단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문화를 만드는 청년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느 때보다 취업은 힘들고 창업은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며 말을 꺼낸 김가연 대표는 “공공기관이 내려주는 문화 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이 기획한 사업을 기관 등이 지원하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훈 대표는 이날 2010년을 전후로 나타난 광주지역 청년문화활동에 대해 정리했고, 윤성진 상임이사는 “젊은 문화기획자들이 콘크리트 속에 갇힌 시민들의 삶을 파고들어 문화로 들어가는 도시 속의 마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두용 대표도 “20대와 30대 등 청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광주 문화 환경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월간 **연극**



### 문화중심도시 광주 ‘멘 파워’ 예향 초대석 음악감독 박칼린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4월호가 나왔다.

지난해 4월 11년만에 독자들 곁으로 돌아온 ‘예향’은 복간 첫호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지존을 둘러싼 ‘광주, 홍콩, 싱가포르의 총성없는 전쟁’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복간 1주년 특집으로 꾸며진 4월호에서는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광주, 사람이 희망이다’를 통해 문화전당의 성과를 좌우할 콘텐츠의 연금술사들, 문화광주의 ‘멘 파워’를 다각적으로 취재했다.

또 다른 특집은 전라도 대표 문인들이 이야기하는 ‘전라예찬’. 문순태, 채희운, 이원규, 김용태, 송수권이 풀어놓는 영산강과 다도해, 지리산과 섬진강, 음식을 통해 ‘전라도의 힘’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스타 음악감독 박칼린씨를 만나고 왔다. 뮤지컬 ‘명성황후’와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등 굵직한 뮤지컬을 지휘한 그는 최근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성인 여성 전용 ‘미스터 쇼’ 제작에 참여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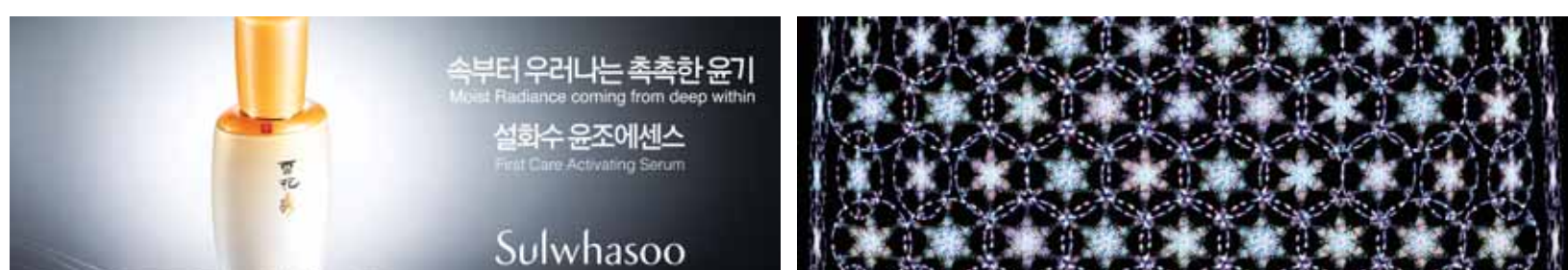
‘이달의 아티스트’ 코너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 국악과 힙합이 함께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박애리·팝핀현준 부부, ‘마주않은 책과 삶’에서는 90년대 이후 대표 여류시인으로 꼽히는 나희덕 시인을 만나 신작 ‘발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창작이야기를 나눴다.

‘스타데이트’에서는 TV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한국은 물론 중국대륙을 흥분하고 있는 ‘도민준’ 김수현씨를 만나본다.

연중기획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한국의 나폴리’ 여수를 찾아가고 이외에도 최근 개막행사를 치른 ‘동아시아문화도시 광주’를 조명했다.

따사로운 봄을 맞아 플로리스트 김수정씨가 전하는 꽃꽂이 노하우와 순천에서 만나보는 문화가 흐르는 공간 ‘상상문화발전소 1839’의 곳곳을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미디어아트, 화장품 병을 피워내다



### 작가 진시영씨, 나전 장인과 설화수 윤조에센스 콜라보

‘오색 LED를 입은 사람 3명이 검은 바탕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들은 곧 아름다운 화장품 병이 됐고, 또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난다. 꽃송이는 이내 봄바람에 휘날리는 뽀얀꽃처럼 화면으로 번져나 나무를 만들고, 화장품 병을 피워낸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가 고급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의 히트 상품인 ‘설화수 윤조에센스 X KOREAN ART CF’를 제작하는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선보였다. (주)아모레퍼시픽은 윤조에센스 누적 판매액 1조원 돌파와 출시 17주년을 기념해 이번 프

투영된 빛을 영상에 담아 건강하고 활기찬 윤기를 담아냈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X KOREAN ART CF’는 지난 17일부터 공개됐으며, 런칭 일주일 만에 조회 수 12만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서울 안국구 갤러리아 백화점 매장을 포함해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모두 9개국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진씨는 “CF를 통해 미디어 아트가 대중과 더욱 친숙해질 수도 있고, 제품 또한 예술을 통해 고급 브랜드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상은 페이스북 등에서 볼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시내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필요한가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VIP 연회권권 신설!**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개인가족별)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웨딩 큰잔치 메뉴** (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피엑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웰빙 샐러드 뷔페** (10층스카이라인)  
부담없는가격 · 풍성한 샐러드 바  
웰빙의 야채와 쇠고기 샐러드  
주중 12,000원 / 주말 15,000원 / 어린이 7,000원(부가세포함)

**호텔무등파크** 문 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